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서면답변서

('21. 10. 21. 제391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



위원별 목차

1. 강 대 식 위원	1
2. 김 병 주 위원	4
3. 김 진 표 위원	9
4. 안 규 백 위원	14
5. 한 기 호 위원	29
6. 홍 영 표 위원	33

국민의힘 강대식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강대식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급 필요>

1.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부름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공무수행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임. 하지만 이들은 병역의무 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음. 현역병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으며, 출·퇴근 복무를 하는 상근 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음. 헌법 제3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병역이행자 간에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병역이행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적인 지원 경비임. 이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1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 답변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모두 동일한 병역이행자이므로, 역종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지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 병 주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병주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부동시 관련>

1. 99년 2월 이후부터는 양쪽 눈의 굴절률이 다른 부동시를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심한 부동시는 몇 급을 판정받습니까?
3. 99년 이전 부동시로 인해 군 면제 판정 받은 인원의 통계는?
4. 그렇다면 작년 기준 부동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5. 작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그 중 질병과 같은 신체적 이유로 보충역 판정이나 병역 면제판정을 받는 인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질의 1

99년 2월 이후부터는 양쪽 눈의 굴절률이 다른 부동시를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 부동시 사유 5급 판정은 '99. 2. 1.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 질의 2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심한 부동시는 몇 급을 판정받습니까?

△ 답변

- 양쪽 눈의 굴절률이 5.00D(디옵터) 이상 차이나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질의 3

99년 이전 부동시로 인해 군 면제 판정 받은 인원의 통계는?

△ 답변

- 2001년 이전에는 병무행정 전산화가 구축되지 않아 세부 질병별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 4

그렇다면 작년 기준 부동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 답변

- 2020년 부동시 사유 4급 보충역은 310명입니다.

▲ 질의 5

작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그 중 질병과 같은 신체적 이유로 보충역 판정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인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답변

- 2020년 검사인원은 총 282,167명이며,
- 병역판정검사 시 4급 보충역은 12.2%이며, 5급 전시근로역 2.7%이고, 6급 병역면제 판정률은 0.3%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김 진 표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산업기능요원 운영 중소·벤처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야>

1. 사회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2벤처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병무행정도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우수업체에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보충역을 3명 채용하면 현역 1명, 5명 채용하면 현역 2명을 추가 배정해 주는 제도)
2. 올해 5월 말 병무청이 발표한 '22년 인원배정방침 고시'를 보면 인센티브 배정 대상에서 1, 2순위 특성화고 졸업자 이외에 3순위인 대학생 및 학사급 현역 입영 대상자를 제외 해버렸어요. 매년 그 규모가 100여 명 정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대학생 및 학사졸업자의 현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ICT분야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대학생 이상의 개발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과기부의 ICT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를 보면 인력수요가 대졸 30.9%, 전문대졸 11.5%이고, 특히 정보처리분야는 대졸 수요가 66.2%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수 인력 수급 통로는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협의체로 <산업지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주요 수요처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가 빠져있어요. 제도 운영에 산업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질의 1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우수업체에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보충역을 3명 채용하면 현역 1명, 5명 채용하면 현역 2명을 추가 배정해주는 제도)

△ 답변

- 예, 그렇습니다.

▲ 질의 2

ICT 분야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대학생 이상의 개발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ICT분야의 최소한의 우수 인력 수급 통로는 남겨줄 필요가 있음.

△ 답변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보충역 자원은 일반대학생도 기존대로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고,
- ICT분야는 전문연구요원도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 수급 통로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 질의 3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협의체로 <산업지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주요 수요처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가 빠져있어요. 제도 운영에 산업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답변

-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등 산업현장의 현실과 목소리 반영을 위하여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안 규 백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수법 다양해지는 병역 면탈행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제자리〉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국방위에서 매년 병무청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지적하는데도 특사경 증원이 거의 없습니다. 병무청은 특사경 증원에 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0명의 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3. 병무청이 파악한 병역면탈 관련 온라인 게시글과 그 게시글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4. 청춘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단 1건의 병역 면탈행위도 놓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관할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는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 기피목적 신체손상 등과 제87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행위에 불과합니다. 제87조제3항의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지 않은 자, 제88조에 따른 입영 기피자 등의 수사관할권이 없는 범죄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서도 병무청이 직접

수사하는게 병무청 특사경의 전문성을 100%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 특사경 수사 관할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법 경찰직무법의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특사경 증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내실 기할 것〉

7.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복무여건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임. 동의합니까? 병무청장,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영대상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함.
8. 다만 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음. 지난해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음. 병무청장,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9.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 제도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6%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34%)보다 많았음. 병무청장 왜 이렇습니까? 또한 5명 중 1명(20.1%)은 교육내용과 보직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음. 병무청장,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10. 전역을 해도 문제임.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에 달함.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입영 전 교육과 군 경험이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임. 어떻게 생각합니까?
11. 이 뿐만이 아님. 병무청은 이 사람들에게 전역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병무청장 맞습니까? 그런데 응답자의 약 92%가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나 개인적으로 취업기관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취업정보를 얻고 있음. 반면, 병무청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약 8%에 불과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80%나 된다는 사실임. 병무청장,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신성로마제국을 “신성하지도, 로마이지도, 제국이지도 않다”고 평가했음. ‘취업맞춤특기병’ 이야기로 그려함. 취업맞춤 특기병에 ‘취업맞춤’도 없고 ‘특기병’도 없음.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그렇지 않습니까?
12. 취업관리에 대한 병무청의 무관심은 취업률에서도 나타남. 병무청장,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은 몇% 입니까? ’19년 대졸자 취업률이 67.7%임. 무려 10%나 낮음. 청년 취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무려 그 심각한 취업률보다 10%나 낮음. 병무청장, 제도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3.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함. 병무청장은 제도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람. 알겠습니까?

▲ 질 의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답 변

-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은
 - 병역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대리수검 범죄를 단속하며,
- 적발된 범죄혐의자는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의 2

국방위에서 매년 병무청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지적하는데도 특사경 증원이 거의 없습니다. 병무청은 특사경 증원에 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0명의 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 답변

- 2021년 디지털 포렌식 전문분석관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채용 하였습니다.
- 현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면탈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향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질의 3

병무청이 파악한 병역면탈 관련 온라인 게시글과 그 게시글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 답변

- 2020년의 경우 병무청이 파악한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는 2,700여 건이며,
- 그 중 병역면탈 범죄 3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질의 4

청춘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단 1건의 병역면탈 행위도 놓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답변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병무청은 단 1명의 병역면탈범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 5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관할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는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 기피목적 신체손상 등과 제87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행위에 불과합니다. 제87조제3항의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지 않은 자, 제88조에 따른 입영기피자 등의 수사관할권이 없는 범죄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서도 병무청이 직접 수사하는게 병무청 특사경의 전문성을 100%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답변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현재 의원입법으로 병역기피자, 복무이탈자 단속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 정부입법으로 올해 2월 대체역의 허위편입 단속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개정소요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의원입법

구 분	이채익 의원('20.11.25.접수)	민홍철 의원('21.5.3.접수)
개정안 (확대)	입영 등 기피, 대체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위반, 허위증명서 발급 단속	대체역 허위편입, 대체역 허위 증명서 발급 단속
진행사항	‣ '20.11.26. 법사위 회부 ‣ '21. 2.22 법사위 상정, 소위회부	‣ '21. 5. 4. 법사위 회부

- 정부입법 : 대체역의 허위편입·허위증명서 발급 단속과 입영판정검사 대리수검 단속 추가

▲ 질의 6

특사경 수사 관할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법경찰 직무법의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특사경 증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병무청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안 통과와 법무부에 제출한 정부입법 개정소요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사경 증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증원 소요는 있으며, 세부 소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질의 7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복무 여건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임. 동의 합니까? 병무청장,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영대상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함.

△ 답변

-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질의 8

다만 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음. 지난해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음. 병무청장,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 답변

-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질의 9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이 제도가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6%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34%)보다 많았음. 병무청장 왜 이렇습니까? 또한 5명 중 1명(20.1%)은 교육내용과 보직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했음. 병무청장, 진로결정에 도움도 안되고, 입영 전 기술교육을 받아도 관련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 답변

-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기술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업 역량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술훈련 분야와 군 복무 보직이 연계되도록 각 군과 지속 협조하여 청년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질의 10

전역을 해도 문제임.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45%에 달함.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입영 전 교육과 군 경험이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셈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변

- 본인이 습득한 기술과 관련성 있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질의 11

병무청은 이 사람들에게 전역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병무청장 맞습니까? 그런데 응답자의 약 92%가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나 개인적으로 취업기관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취업정보를 얻고 있음. 반면, 병무청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약 8%에 불과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80%나 된다는 사실임. 병무청장,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신성로마제국을 “신성하지도, 로마이지도, 제국이지도 않다”고 평가했음. ‘취업맞춤특기병’ 이야기로 그려함. 취업맞춤특기병에 ‘취업맞춤’도 없고 ‘특기병’도 없음. 사실상 전역 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

- 병무청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취업역량교육, 우수 중소기업 취업매칭, 취업박람회 참여 등 전역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기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병무청의 취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12

취업관리에 대한 병무청의 무관심은 취업률에서도 나타남.

병무청장,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은 몇% 입니까? '19년 대졸자 취업률이 67.7%임. 무려 10%나 낮음. 청년 취업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무려 그 심각한 취업률보다 10%나 낮음.

병무청장, 제도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답변

-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 기회를 제공해 직업능력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13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함. 병무청장은 제도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람. 알겠습니까?

△ 답변

-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도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한 기 호 위원

▲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대중문화예술인, 국위선양 위해 병역 특례 줘야!>

1. 올림픽 메달리스트 외에 국제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콩쿠르 등의 순수예술분야의 대회에서 우승해도 소위 ‘군면제’ 즉,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되죠? 이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병역혜택 대상을 굳이 순수예술 분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3. 최근 한국인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Do you know 김치?”가 아닌 “Do you know BTS?”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아십니까?
4.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병역특례 받을 수 없고 병역 연기만이 유일한 특례이며, 이마저도 작년부터 시행 중임. 국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5.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였음. 알고 계십니까?
6. 그렇다면 참가한 선수들이 룰(리그오브레전드의 약자,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7. 옛날 표현으로 ‘컴퓨터 게임’을 잘해서 병역면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얘기하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나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8.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비보잉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아십니까? 비보잉을 엄연히 분류하면 대중문화예술로 분류가 될 텐데,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면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9. 대중문화예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는 충분히 있을 것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거나, 1등을 한 경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정도면 공신력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10.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홍보 예산을 쓰는 것보다 BTS가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11. 만약 BTS가 일정기간 동안 독도에서 근무를 한다면 연간 200억 원을 들여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백번, 천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2. 예술·체육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질의 1~12

- 1~8. 병역혜택 대상을 굳이 순수예술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 아시아 게임은 e-스포츠, 올림픽 대회는 비보잉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체육요원으로 편입 가능한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안됨.
대중문화예술인을 차별하는것 아닌지?
- 9~12. 빌보드 차트에 진입 또는 1등을 한 경우 상당한 의미 부여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계에서도 공신력 및 대표성 있는 지표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한국을 알리기 위한 막대한 홍보 예산을 쓰는 것보다 BTS 홍보 효과가 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답변

-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한류문화 확산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

답 변 서

▲ 질의위원 : 홍영표 위원

▲ 근거 : 국회법 제122조

▲ 질의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역진로설계사업도 온택트 전환 모색해야〉

1. 얼마 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였지요? 기존에 서울 1개소만 운영하다 대구, 광주, 대전에 추가 설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센터의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정도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2.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가 부실해보임.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상담이나 군생활 체험은 사실 불가능한데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3.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면 개별상담 뿐 아니라 VR을 통한 군 생활 체험 등 프로그램이 다양함. 18~20세 현역병 대상자들 눈높이 맞게 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곧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도 온택트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향후 전국 지방청 단위로 추가 설치할 병역진로 설계센터 또한 대면·비대면 서비스 소요를 예측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심층평가 및 모집분야 점검 필요해〉

4. 청장님, 우리 군 모집병 제도 중 하나인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장병들의 평균 취업률이 2020년도 기준으로 57.7%인데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도 취업률이 여전히 기대 이하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 이 제도는 고졸 이하자,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제도인데 모집대상자 대비 지원 인원이 상당히 저조함. 현재 현역병 모집충원 계획인원의 1~2%만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고졸 이하자만 하더라도 30%를 훨씬 넘음.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셨습니까?
6. 특정 모집분야에 지원자가 편중된다는 점도 살펴야겠음. 육군의 경우, 모집분야가 총 74개인데 이 중 상위 6개 분야에 지원자의 절반이 몰려있음. 이렇게 소수 몇 개 특기에만 많은 장병이 몰리다보니 정작 그 분야의 취업률은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 각 군별로 모집하는 특기, 계열, 직종의 실효성을 연단위로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봄. 취업소요를 선반영해야 함.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고용시장의 수요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음. 취업모집특기병의 사전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미래의 취업소요를 선반영해야 함.

▲ 질의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개소하셨지요? 기존에 서울 1개소만 운영하다 대구, 광주, 대전에 추가 설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센터의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정도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 답변

- 병역자원 수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3개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8월말 기준 서울센터 이용자는 7천 6백여 명입니다.
-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모든 병역 의무자들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확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 질의 2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대면서비스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가 부실해보임.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상담이나 군 생활 체험은 사실 불가능한데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 답변

-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질의 3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면 개별상담 뿐 아니라 VR을 통한 군 생활 체험 등 프로그램이 다양함. 18~20세 현역병 대상자들 눈높이 맞게 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곧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병역 진로설계 사업도 온택트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향후 전국 지방청 단위로 추가 설치할 병역진로설계센터 또한 대면·비대면 서비스 소요를 예측해 그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 할 것임.

△ 답변

-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질의 4

청장님, 우리 군 모집병 제도 중 하나인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장병들의 평균 취업률이 2020년도 기준으로 57.7%인데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도 취업률이 여전히 기대 이하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답변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5

이 제도는 고졸 이하자,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된 제도인데 모집대상자 대비 지원 인원이 상당히 저조함. 현재 현역병 모집충원 계획인원의 1~2%만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고졸 이하자만 하더라도 30%를 훨씬 넘음.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셨습니까?

△ 답변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대상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동영상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6

특정 모집분야에 지원자가 편중된다는 점도 살펴야겠음.

육군의 경우, 모집분야가 총 74개인데 이 중 상위 6개 분야에 지원자의 절반이 몰려있음. 이렇게 소수 몇 개 특기에만 많은 장병이 몰리다보니 정작 그 분야의 취업률은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 각 군별로 모집하는 특기, 계열, 직종의 실효성을 연단위로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봄.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고용시장의 수요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음. 취업모집특기병의 사전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서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하고 미래의 취업소요를 선반영해야 함.

△ 답변

-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새로운 취업소요를 발굴하고 이를 취업 맞춤특기병 모집분야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